

보성 의병장 전방삭 장군 호남바다 지켰다

호남의병연구소 학술세미나

별교의병 300여명 모아
보성·고흥·순천시 왜병과 전투
보성 해상의병 국란 때마다
뱃길 차단 항토방위전 전개

임진·병자호란 등 국란 때마다 보성지역에서는 의병이 일어났으며 육지와 달리 해상의를 결성해 침입 선로(船路)를 차단하는 등 항토방위전을 전개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전방삭 장군을 주축으로 활약한 보성의병이 있었다.

사)호남의병연구소 노기욱 소장은 지난 14일 보성군 별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성군 의병장 전방삭 장군 학술세미나'에서 보성 지역특성을 감안한 독특한 해상의병 활동을 강조했다. 전방삭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적진포 해전 등 크고 작은 해전에서 활약했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고향 보성에서 별교의병 300여명을 모아 보성, 고흥, 승주, 순천 등지에서 왜적을 상대로 전투를 전개한 대표적 의병장이다.

노 소장은 '보성군 의병장 전방삭 장군의 해상의병 활동' 주제발표에서 "보성의병은 적이 침투하기 용이한 항구를 중심으로 해상의병을 결성해 관군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해상선로를 차단하며 항토방위전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인선(순천대 박물관장) 교수는



'보성군 의병장 전방삭 장군 학술세미나'가 최근 별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정현창(왼쪽에서 네번째) 전남대 강사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성읍성과 조양창'(弔陽倉) 주제발표를 통해 "조선 초기 연해지역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으로 자리하면서 성곽과 관방유적을 두드러지게 잘 정비하고 수축했다"며 "특히 조양현성은 조양창에서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군량을 조달한 창고였던만큼 중요사적으로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보성지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조명됐다.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는 '양란(兩亂) 호남 의병과 보성' 주제발표에서 "임진왜란 초기 박광전의 전라좌의병이 경상도 진주성을 구원하는 등 보성군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전란에서 크게 거병한 곳"이라며 "특히 박광전의 제자와 보성 임진의병 후손들이 대를 이어 병자호란에 거병한 것

은 어느 곳에서 찾기 힘든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창 전남대 강사는 '보성 의병의 출구 선소'(船所) 주제 발표에서 "보성군은 연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전남의 중심 거점으로 물산이 풍부한 덕분에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포구와 선소가 크게 발달했다"며 "풍랑에 배가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여러 장점을 가진 요충지였기 때문에 보성지역은 의병들의 전략적 해상출구로 이용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부 토론회는 전남대 사학과 김병인 교수 좌장을 맡고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최원종 실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 사)호남의병연구소 송철환 번역위원, 목포대 강봉룡 교수, 전남대 신말식 교수, 전남대지역개발센터 김숙희 연구원 등

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보성군 의병장 전방삭 장군이 임진왜란 전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고, 그의 아들 판관 전홍례는 병자호란에 인조 세자와 왕비를 강화도로 호종하다가 적과 교전 중 전사한 사례를 들어 보성의 절의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 점을 주목했다. 또 보성군 의병이 왜진포, 조양, 별교 영동, 고흥 망저포, 고흥 점산, 승주, 순천 해상지역에서 적을 무찌르고 항토방위전을 전개한 것은 '호남의병의 상징적' 사례라는 데 공감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방삭 장군 유적 보존회, 사)전방삭 장군 의병장 호국선양회, 전남대 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사)호남의병연구소가 주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문화예술창작 성과발표회 성료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광주대 교양교육원은 최근 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제4회 2019 문화예술창작 교양과목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인 GU 핵심역량 향상 프로그램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성과발표회는 주요 보직교수와 문화예술창작 교양과목 지도교수,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펼쳐졌다.

성과 발표회에는 ▲관계를 잇는 디자인 ▲내 스토리로 만든 음악 ▲삶을 읽는

연극 ▲나를 깨우는 몸짓 등 4개 과목 수강 학생들이 12개 팀을 구성, 시각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미술과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광주대 박진영 교양교육원장은 "학생들 스스로 창작한 작품을 무대에서 공유하고, 그 성과를 자신감과 창의력 향상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문화예술창작 프로그램이 학교 특색화 교양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더욱 알차게 준비해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남부대, 지역연고산업 육성 주관 대학 선정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에 선정돼 '소재·부품융합산업의 표면처리기술 고도화 경쟁력 강화 사업' 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연고사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다.

남부대학교는 이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내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참여기관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김영래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는 "지역내 연고산업인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에 따른 제조기반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으로 기술 고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창업의 요람' 거듭난다

보육센터, 중기부 운영·경영평가 17년 연속 최우수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창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강대 창업지원단(단장 박경우)은 창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보육센터와 청년 창업가를 꿈꾸는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두 센터는 최근 외부 기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창업보육 사관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우선 동강대 BI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60여 개 BI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BI센터 운영·경영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17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창업교육센터도 한국창업보육협회 주관한 '매경대학창업지수' 평가에서 전국 전문대학 170여 곳 가운데 '톱 10'에 드는 상위 성적을 기록했다. 앞서 동강대는

'2017 대한민국 벤처·창업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창업활성화 지원 기관부문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동강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창업의 꿈을 키워가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강대는 지난 해부터 광주 북구와 손을 잡고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각각 진행 중이다.

교육부 사업의 경우 호남·제주권 유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20년까지 청년 CEO들의 창업 성공 향상과 함께 폐업을 최소화해 더욱 주력하게 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제1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구성

광주시교육청이 '제1기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구성을 마쳤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광주시민과 교육 협치를 이뤄나가기 위해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 4일 위촉식을 한 뒤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참여단은 교육협치에 관심 있는 시민 6명과 시민(직능)단체 추천자 16명을 공개모집했으며, 시의원 2명,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9급 공무원 선발 경쟁률 6.4대 1

전남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선발 경쟁률이 6.4대 1을 기록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1917명이 응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방공무원 선발에서 298명의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평균 실질 경쟁률은 6.4대 1로, 원서접수 결과

집계된 9.2대 1보다는 하락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은 191명을 선발에 1201명이 응시해 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12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뒤, 7월 26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산정초 '제1회 산이 정이 재미장터'



학생·학부모 50팀 알뜰장터 체험부스·나눔부스 등 운영

광주산정초등학교는 최근 '제1회 산이 정이 재미장터'를 개최했다.

〈사진〉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 사업으로 학부모회가 주관한 '산이 정이 재미장터'는 학생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직접 체

험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한 50여 개 팀은 알뜰장터에 참여했고, 학부모 봉사 동아리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 나눔 부스, 이 벤트부스를 운영했다. 또 이들은 알뜰장터 수익금 10%를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4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